

시선

사설

벌써부터 빼걱대는 '빅뱅에서 문명까지'

올해부터 애심하게 도입된 제3의 필수 중핵교과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가 시작부터 빼걱거리고 있다. 수업환경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개설 강좌 수부터가 학생 수 대비 현저히 부족한 탓에, 온라인 곳곳에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우수성이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강의 매매'까지 등장하고 있는 판국이다.

지난 1학기에 450명 규모로 개설됐던 '빅문' 강좌는 이후 강좌 규모 확대를 도모한 끝에 2학기에 이르러 720명 규모로 소폭 확대됐다. 하지만 이것은 한 해 총 2,700명에 이르는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수용하기에 충분치 못한 규모다.

'빅문'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강좌 규모를 확대하는 작업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학기 당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측이 '강좌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90명 정원 강좌 3개 추가'에 그치고 만 것은 교과목의 특성 탓이라는 후문이다. 인문학 위주의 '인간의 가치탐색(인가탐)'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우사세)'과는 달리 '빅문'은 과학 중심 교과인 탓에 기존 교강사 인력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신규 교강사 임용도 물리적, 재정적 여건 상 수월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인가탐', '우사세' 강좌가 주로 30~40명 정원의 강좌로 구성된 데 비해 '빅문' 강좌는 90명 정원의 강좌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둘째, 위와 같은 이유로 '학생 수 대비 현저히 부족한 강좌 수'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 필수 중핵교과가 한 해 동안 그 해 신입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교과목을 듣지 못하는 학생이 매 해 지속적으로 누적돼 간다는 문제가 벌어진다. 당장 올해 '빅문'을 수강하지 못한 신입생 약 1,530명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2017학년도에 '빅문'이 수용해야 하는 학생 수는 내년도 신입생 2,700명을 더해 총 4,200명을 훌쩍 넘어가게 된다. 강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질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 경영대학의 수강신청 과정을 지켜보며 이러한 문제를 선 체험한 바 있다. 당시 경영대학은 전공과목 정원을 4학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인위적 수강조정을 실시해 많은 학생들의 비판과 우수성에 직면했다. '빅문'이 이런 전철을 밟게 될 경우, 일개 단과대 차원을 넘어 한 학번 전체 학생이 해당되는 필수 중핵교과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최소한 연간 2,000명의 학생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야 이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있겠으나, 현 상황을 타개할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구성원의 걱정을 낳는다.

'빅문'이 맞닥뜨린 난국은 탄탄한 정지작업 없이 일단 결과물을 만드는 데 급급했던 후마 측의 선부름에서 비롯됐다. 당위에만 집중하며 그 세부를 놓친 결과, 좋았던 취지가 무색하게 그것을 지지하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무릇 한 사업의 가치는 취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견지되는 양상에 달린다. '빅문'의 전개 양상에 구성원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CPA 합격자 58명, 전체 대학중 5위

미디어 여론동향 2016. 9. 6 ~ 9. 19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지난 2일 서울캠 오비스홀에서 '2016 공인회계사 합격자 축하연'이 열렸다.(우리학교 CPA 합격자 58명, 대학별 순위에서 첫 5위 올라/대학주보 온라인, 2016.9.6) 이번 51회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우리학교 합격자 수는 58명으로 이는 전체 대학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에 비해 14명의 합격자가 더 늘어난 배경에는 경영대학이 운영하는 공인회계사 고시반 청현재가 있었다. 청현재는 전담 지도교수를 배정해 학생 생활지도, 온·오프라인 특강, 장학금 등을 지원하며 매달 치르는 자체 시험을 통해 성적이 낮은 학생을 퇴실조치 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주의 주제 - 학내 흡연구역

편리와 권리 사이

최병현 기자

chbh1027@knu.ac.kr

또다시 흡연구역이다. 매년 반복되는 흡연권과 간접흡연 피해 사이 논쟁. 이 식상한 화두는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본지는 십 년 전 이맘 때 독자투고를 받았다. 당시 독자는 이렇게 말했다.

"흡연자의 편리는 물론 비흡연자의 권리도 존중 받았으면 좋겠다."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 흘렀다. 어찌면 훨씬 이전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만으로 회자된 이야기 인지도 모른다. 무려 십 년도 더 지난 독자의 투고를 인용하는 까닭은 아직도 흡연구역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배려가 부족한 흡연자 문제도 예민한 비흡연자 탓도 아니다.

대학 사회는 흡연을 둘러싼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양한 입장과 가치가 마주하는 대학가에서 구성원 간 이해관계는 더욱더 침에하게 대립한다. 그 때문에 대학본부 역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흡연자의 권리를 지키며 비흡연자의 협연권 역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주체의 개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정부다.

지난해 정부는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리학교 구성원 중 16.9%가 담배를 핀다고 응답했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 봤다. 우리학교 구

성원 약 2만 5천 명 중 16.9%의 흡연자가 담배를 일주일에 한 갑씩 피운다고 가정한다면, 학내 흡연자들에게서 걷히는 연간 담배 세수는 약 7억 3천만 원에 달한다. '호화롭다'는 평가를 받는 중앙대의 흡연부스(대당 6천만 원)를 가져온다고 해도 12대 가량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담배 세수는 끊임 없이 증가해 연간 10조 원을 이미 넘어섰고, 올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대학본부가 문제해결에 무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だ중이용시설인 대학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정부가 관리해 나서야 한다. 담배세 인상 당시 '국민건강증진'을 명분 삼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말이다. 정부의 손으로 학내에 퀘직한 흡연공간이 설치·운영된다면, 담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서로 자신의 권리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흡연자는 기준선 안에서 자신의 편의와 권리가 즐길 수 있고 비흡연자는 기준선 밖에서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간접흡연 피해가 없고 옷에 냄새가 배지 않는 퀘직한 흡연공간. 흡연 부스도, 구역이 나뉜 독립된 공간도 괜찮다. 모두가 담배 연기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흡연이 혐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떠한 곳이라도 좋다. 늘어난 세수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대학가 금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방안을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을 구상해 달라. 흡연구역을 둘러싼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는 학교의 행정적 척도를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학교 너무 믿지 마세요'라는 글(#경희숲_16238, 2016.9.7)의 글쓴이는 '4학년 2학기, 수강정정기간 중 학과 사무실에선 졸업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4과목이나 오차가 생겨 졸업 유예를 받았다'라며 '결국 고스란히 등록금을 더 내야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사연도 있었다. '학점 인정을 해 준다 해서 장기 해외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 정작 돌아오니 학점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는 글(#경희숲_16274, 2016.9.8)의 글쓴이는 '해외 프로그램 참가 전 행정실에서 그만 좀 오라고 할 정도로 꼼꼼히 확인했는데, 정작 이제 와서는 한 과목도 인정 못 해 주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만 한다'고 썼다. 학생들은 저마다 '칠판통 교직원들, 학생 사정은 나몰라라 하고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담당자 이름 확실히 알고 녹음이라도 해야 되니', '나도 과사무실 잘못으로 부전공을 인정받지 못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경희대가 제48회 전국남여양궁종합선수권대회 여자부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경희대, 전국종

수요파악보다 실질적인 교육과정 논의의 참여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시간은 좀 지났지만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지난 2월 잡코리아에서 있었다. '세뱃돈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라는 설문조사에서 유독 눈에 띈 것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는 '세뱃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 항목이었다. 설문 참여 직장인 중 17.1%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기자는 이번 추석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며 마냥 즐겁다기 보다는 알 수 없는 무거운 마음부터 들었다. 자주 내려가지 못해 친척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죄인이 된 것 같은 '눈치'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추석 당일 제사를 끝내고 나면 친척들 간에 덕담을 주고받으며 용돈을 건네주는 것도 하나의 풍습처럼 자리 잡혀있다. 기자 역시 용돈을 받았지만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부담이 되는 등록금, 월세, 용돈을 받으며 대학교 4년을 다녀야하고 거기다 요즘엔 휴학까지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은 더 커진다. 마음의 짐은 대학생에게 돌아가게 되고 매 명절마다 부담은 끊임 없이 반복된다.

이 악순환을 단번에 풀어버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다시 말해 직업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말끔히 사라진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둡다. 이번 대학알리미 공시지표를 보면 우리학교의 취업률은 51.2%로 반을 조금 넘는 수치다. 기자의 학과인 정치외교학과 또한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눈길이 가는 곳이 미래창조스쿨이다. 취업·창업 교육과정을 만들어 미래대학리포트에서 나온 학생들의 절규를 반영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는 많았다. 학교 구성원이 모르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인문학을 중시하는 후마니타스에 취업 교육과정을 만드냐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학교도 올해 후마니타스 개편과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소통,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오기는 당연히 어렵다. 대학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기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라면 정말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취업·창업의 신설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인문학 중심의 후마니타스 교양이 대학의 가치를 잊어버린 대학의 현실에 대비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교육과정이다.

미래창조스쿨은 2학기 중 각 교육과정의 수요를 파악해 다음 해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단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과목, 교육과정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창조스쿨을 주도하는 대학의 치열한 고민과 소통을 바래본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